

# 統一新羅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도록 사상적인 뒷받침을 해준 것은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불교문화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皇龍寺의 9층목탑은 신라의 王都內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高大하게 건립하여 국민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고 花郎을 미륵신앙과 결부시켜 나라를 구하고 평화로운 황금시대를 이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 四天王寺의 조영도 신라인의 통일을 염원한 하나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염원과 수단으로 통일을 이룩한 만큼 통일 후에 불교문화는 황금시대를 이루게 되며 따라서 불교건축에 있어서도 황금기를 맞게 되어 고도의 건축예술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적 요소는 이 시대 궁궐이나 다른 권위건축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어 건축장식 문양이나 채색에 있어서도 대단히 화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의 통일을 기하여 신라는 새로운 주체의식을 갖게 되고 唐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고유한 예술문화를 발전시켜 건축기술과 기법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개발시킨 흔적을 考古學的 유구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대의 불교는 義湘, 元曉 등의 大僧이 출현하여 華嚴宗을 전파함은 물론 海東宗을 창시하여 널리 인정을 받았으며 당으로부터 禪敎를 받아들여 9山禪의 중풍을 일으켜 전부터 성립된 5敎와 함께 발전을 보게 되었다. 또 聖德王 때에 慧超 같은 이는 당을 거쳐서 西域에 순례하여 그 견문기인 『往五天竺國傳』을 써서 당시의 중요한 문헌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산업과 도시 또한 크게 발달하여 인구의 증가와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 기술된 건축규제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고 근래에 발굴조사된 안압지 유적에서 이 시대 궁궐건축의 화려함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번영하던 신라도 9세기 말부터는 차츰 왕권의 쟁탈과 내란이 빈번하고 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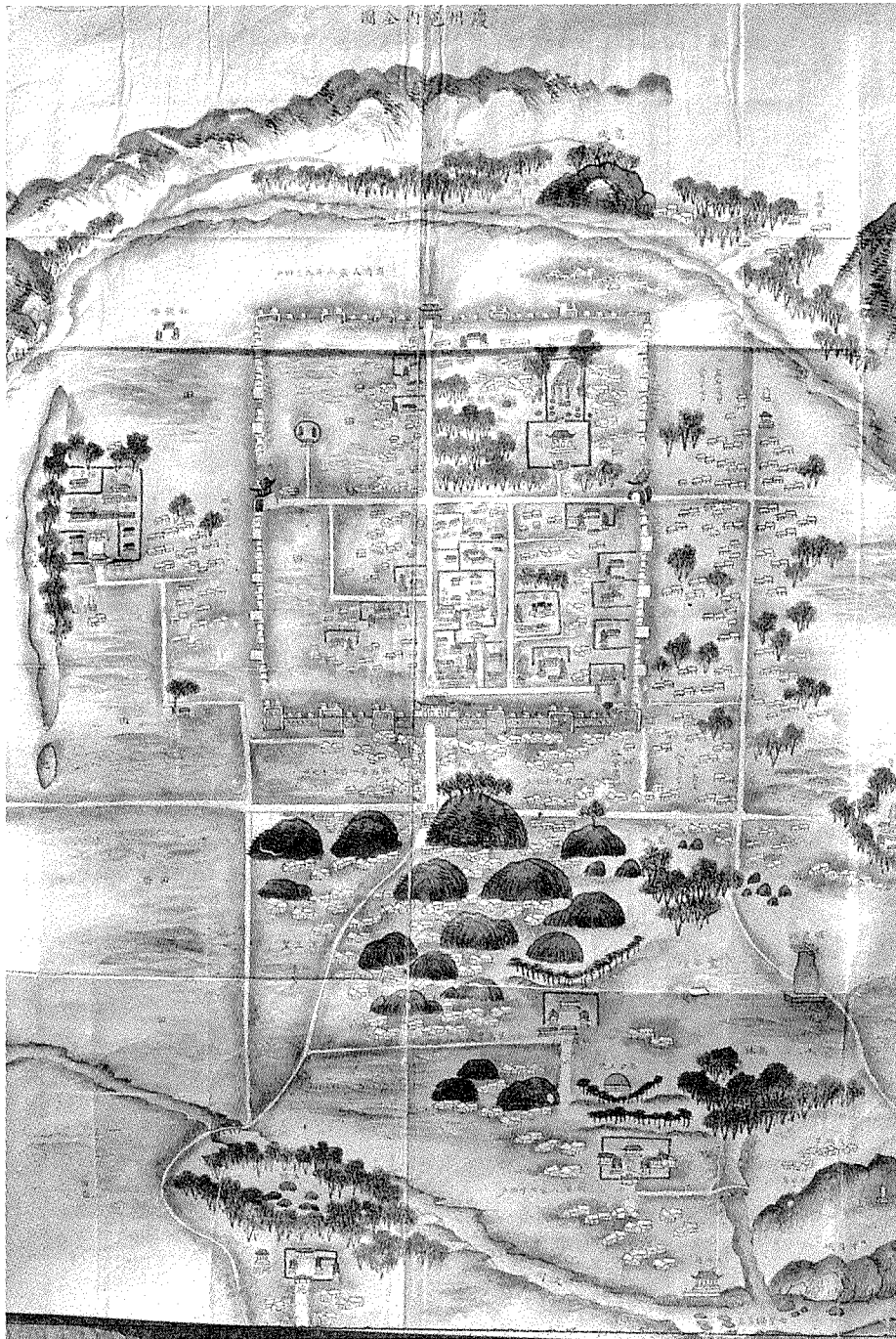
왕들의 퇴락된 생활로 민심이 유리되어 가던 중 完山州(현재의 全州)를 근거지로 한 후백제와 松岳(현재의 開城)을 근거로 한 후고구려의 틈새에서 차츰 세력을 잃더니 결국 敬順王 9年(935)에 고려 태조 王建에게 천년 사직을 내어줌으로써 신라는 망한다. 그리하여 王建은 후백제마저 멸망시키고 936년에 약 50년간 지속되었던 후삼국시대의 내란기를 청산하게 된다.

## 1. 都城 및 宮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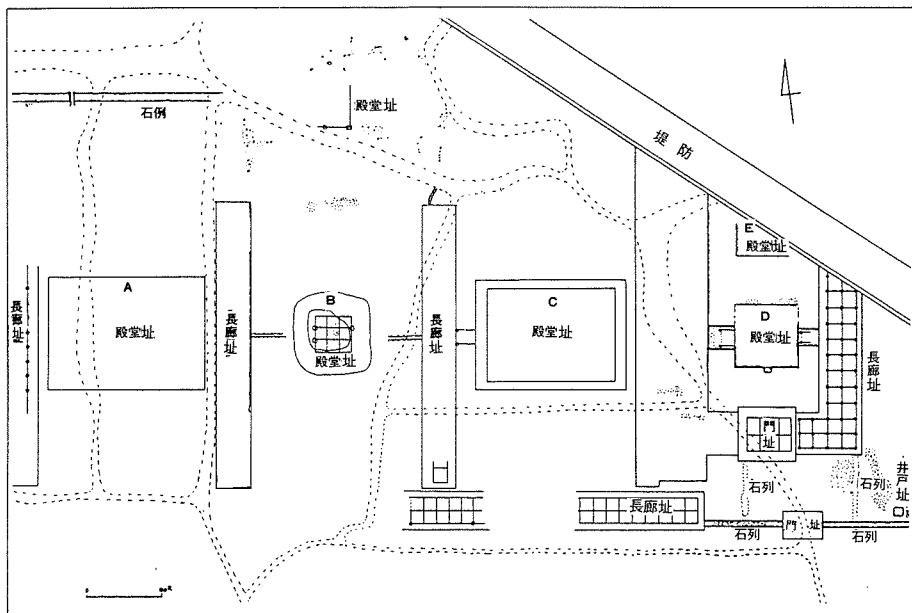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포함한 삼국 중에 유일하게 도읍을 한 곳 즉 慶州에 정하여 천여년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수도를 한 곳에서 시종 영위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의 입지적인 조건, 즉 땅이 비옥할 뿐 아니라 국방의 방어적인 면에서 要衝의 盆地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분지로 형성된 경주는 이미 前號에서 기술했듯이 동서남북에 요새를 만든 산들이 둘러져 있고 南·西·北에 하천이 둘러져 있어 외부에서 침입이 어렵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南川 남쪽 南山 서쪽 기슭에 있었다는 高墟村에서 궁성이 시작되어 월성과 그 서북쪽에 위치하였다는 金城 등의 왕궁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었다고 믿어지며 6세기 초부터는 (直京都東市)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도성 동편에 皇龍寺와 같은 巨刹이 세워지고 그 후에는 안압지 등이 조영되어 도성이 동쪽으로 확장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號의 항공 사진에 나타난 황룡사 부근의 坊里흔적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 시가는 황룡사를 중심으로 특히 9층의 목탑을 頂點으로 하여 펼쳐 나갔다고 생각되는데 이때에는 이미 도시계획의 井田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후로는 市街가 하천을 건너 서북쪽과 남쪽 蚊川 건너까지 뻗어 日精橋와 月精橋, 孝不孝橋 西川의 鬼橋 등이 통행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7세기 말 神文王 때에는 왕도를 達旬伐(대구)로 옮기려 하였으나 義湘의

◆ 張慶浩

36年生으로 한양공대 건축과를 졸업(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소장을 거쳐 87년 3월 제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1988년 홍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慶州古色城圖 (集慶殿舊基에서 轉載)



▲城東里遺構圖

층고로 증지하였다. 또 9세기 말 憲康王條 기록에 의하면 <왕은 좌우 신하와 더불어 月上樓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民家가 즐비하고 풍악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왕은 待中 敏恭을 돌아보며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가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덮고 짚을 쓰지 아니하며 밥을 짓되 솥으로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고 물으니 민공은 ‘신도 역시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하고 ‘상감이 즉위한 이래 陰陽이 고르고 풍우가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邊境은 평온하고 시정은 안락하니 이는 모두 성덕의 소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三國史記』地理志에 보면 처음 왕도의 규모가 기록되었는데 <王都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三十五里六部 國號曰徐那伐 或云斯羅...>라고 하였고 또 『三國遺史』에서는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라고 되어 있어 초기의 도시 면적은 長邊이 약 3,690m 이고 短邊이 약 3,621m로 換算된다.<sup>3)</sup> 또 후술한 戶數와 坊을 따지면 한 坊에 약 130戶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어 실제 발굴조사에 의한 坊의 면적은 약 140m×160m=22,400㎡로 되어 한 戶當 172㎡가 되어 약 52坪이 推算된다. 이렇게 보면 당시 慶州市의 인구는 약50~60만이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逆算하면 전성기의 慶州市는 지금의 慶州市의 행정구역 면적과 거의 비슷한 약 29,000町步이었고 그 인구는 지금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계산된다. 경주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인지 神文王 5年 3月에는 二小京 즉 南原小京과 西原小京을 설치하고 여러 고을의 주민을 이곳에 옮겨 살게 했고 景德王 16년에는 三小京을 증설하여 五小京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南原小京(현 南原), 西原小京(현 淸州), 北原小京(현 原州), 中原小京(현 忠州), 金海小京(현 金海)이다.

한편 이 시대의 궁궐로는 이미 기술한 月城 이외에 여러 궁이 여러 번의 重修와 増築으로 이어 나온 듯 하며 특히 『三國史記』文武王條에는 <궁내에 연못을 파서 산을 만들고 온갖 화초를 심어서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 하고 同 19년에 궁궐을 중수하고 東宮을 창건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즉 월성 동북부에다 唐 長安城의 禁苑을 모방하여 雁鴨池를 만들어 巫山十二峰을 본따 造山을 하였으며 臨海殿을 세워 군신이 향연을 베풀고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한때 당에서 온 사신은 이곳의 화려함을 시로 찬양한 사실도 있었다. 이 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궁궐건축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 文武王 17年(676)에 壤宮을 지음
  - 同王 18年 講武殿 남문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함. 左司祿館, 永昌宮 盛典을 둠.
  - 同王 19년에 東宮을 지음.
  - 同王 21年(681)에 右司祿館을 둠.
  - 神文王 2年(682)에 神宮에 祭祀함.<sup>4)</sup>
  - 同王 7年(687)에 祖廟에 祭祀함.
  - 孝昭王 6年(697)에 臨海殿에서 잔치함.
  - 同王 7년에 崇禮殿에서 일본사신을 인견함.
  - 聖德王 16年(717)에 新宮을 창건함.
  - 孝成王 3年(739)에 善天宮이 낙성됨.
  - 景德王 7年(748)에 永明新宮으로 太后가 移居함.
  - 元聖王 3年(787)에 萬波息笛을 內黃殿에 보관함<sup>5)</sup>
  - 昭聖王 1年(800)에 瑞蘭殿의 문발이 날아감.
  - 哀莊王 2年(801) 태종과 문무대왕을 모신 二廟와 기타 五廟를 세움.
  - 憲德王 3年(812)에 平議殿에 납심.
  - 同王 14年(823)에 月池宮에 입처함.
  - 景文王 14年(874)에 月正堂을 중수함.
- 이 외에도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와의 전설이 담긴 瑤石宮이 기록되어 있고 기타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 古奈宮, 穢宮, 會宮, 靑淵宮, 屏村宮, 南下所宮, 北宮, 積板宮, 城南離宮, 鮑石亭, 同禮殿 등이 있고 『三國遺史』 皇龍寺 丈六條조에 보이는 龍宮이 있으며 그의 樓나 門의 건물명도 상당히 있다. 이들 건물들의 위치는 지금 알 수 없고 다만 월성과 포석정 그리고 임해전과 안압지 등이 遺址로 남아 있다. 또 1937년에 발굴조사된 慶州 城東里 建物址가 알려져 있다. 이들 조사된 유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慶州 城東里 建物址  
경주묘城 東里의 북천 연안에 남쪽으로 놓였는데 남으로 남산의 靈峰을 바라보며 월성 정북에 위치하여 芬皇寺 塼塔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前부터 廢寺址로 추정되는 土壇이 있었다. 일제시 북천 호안공사를 하다가 유구일부가 노출됨으로서 1937년 발굴조사를 하여 그 면모가 드러났다. 발굴보고서<sup>6)</sup>에 의하면 이 토단을 중심으로 주위에 많은 建物址群이 노출되었다 한다. 건물지는 정남향에서 동으로 약 6° 기울어져 남향하고 있었다 한다. 토단으로 불리우는 건물지 B에서는 높은 단을 이루는 기단 위에 圓形柱座 礎石 3개가 노출되었는데 동서로 3칸 53尺(16m), 남북 3칸 56尺으로 거의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건물지 중앙에 큰 돌이 있었다고 구전된다. 이 건물지 동·서에는 양측 회랑지와 연결되는 돌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다. 토단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 축선상에 주요 건물지가 배열되어 있는데 서측에는 중심거리 약 139.3尺에 大殿堂址 A가 있고 또 동쪽 중심거리 약 147.5尺 되는 거의 대칭되는 곳에 동서기단 길이 약 125尺, 남북길이 약 77尺되는 殿堂址 C가 있으며 이 사이에는 동·서 회랑지가 구역을 막고 있었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중심거리 약 147.5尺 되는 곳에 한 변이 약 43.65尺되는 정방형 소규모의 건물지 D가 노출되었다. 이 건물지 D를 중심으로 남북 축선상 남쪽에는 거리 약 67.6尺되는 곳에 3칸×2칸(28尺×19.5尺)의 門址와 북쪽으로는 중심거리 약 77.9尺 되는 곳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추측되는 건물지 E가 노출되었는데 동쪽과 북쪽의 반 이상이 流失되어 확실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한다. 이 건물지쪽 D의 동·서변 중앙에는 회랑이 연결되어 側廊을 이루고 이 측랑은 동·서에 놓인 複廊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북랑은 북쪽에서는 유실되었고 남쪽에는 門址1과 연결되었다. 또 이 동남쪽에 약간 떨어져 또다른 門址2가 있다. 廻廊의 폭은 북랑인 경우 초석과 기단석이 잘 남아있어 동회랑의 예를 들면 도리축의 주칸은 10.63尺이고 보축의 주칸이 9.25尺이었고 單廊은 건물지 B와 C 사이에 있는 회랑 남단부에 일부 남아 있는

초석으로 보아 전술한 複廊의 주칸과 같다. 또 건물지 C와 D 사이에 놓인 회랑지는 그 유구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동서폭이 약 50尺 내외였던 것 같다고 하여 C와 D 건물지 사이에 동서회랑이 중복되었던 것 같다. 이들 건물지의 기단은 대부분 밑에 布石을 하고 그 위에 문양없는 장방형 塼을 쌓아 올렸다 한다. 또 초석은 統一新羅시대의 圓形柱座를 갖는 方形礎石이라 하였으며 담장지의 석렬은 넷들로 쌓아 폭 3.4尺을 이루었다 한다.

이상의 건물지의 성격을 보면 그 규모나 배치로 보아 주위에 더 확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이들은 많이 유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건물지 B를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중요건물들이 배치되어 마치 고구려의 淸岩里 寺址와 같이 五行思想의 방향을 갖는 배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전술한 안압지의 남·서안 건물군의 배치와도 상통되는 점이 많으며 사찰의 가람과도 상통되는 재치를 보인다. 더우기 이곳에서 출토된 寶相華紋의 塼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寶相華紋塼과 상통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 건물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 地理志에 나오는 (新月城 북에 滿月城이 있어 그 주위가 1,838步였다)하는 만월성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註□

- 1) 『東京雜記』와 『東國輿地勝覽』에 〈新羅井田遺基尚存〉이란 기록이 있음.
- 2)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 3) 周尺 6尺이 1步라고 『史記』 秦始皇條에 기록되어 있으며 尹張燮씨의 풀이에 의하면 周尺을 약 20cm로 발표하고 있다.
- 4) 神宮이란 궁명은 삼국시대부터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日本의 神社와 관련된 건축으로 추정된다.
- 5)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元聖大王條.
- 6) 朝鮮古蹟研究會, 昭和12年度 古蹟調査報告 慶州 に於ける新羅統一時代遺構址の調査.